

광양시, 3회 연속 '가족친화기관'

2015년 최초 인증...정시 퇴근·유아휴직 권장·출판 물품 지원 등
2026년까지 자격...정겨운 일터 조성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방침

광양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취득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나섰다. 광양시는 2015년 최초 인증을 받은 뒤 2020년 1차 재인증에 이어 올해 2차 재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광양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문화를 확산해 왔고, 출산휴가 및 남녀직원 육아휴직 권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임신 출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에 힘써 왔다. 또 전 직원 국내 문화탐방 지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노부모 부양 직원 효도 관광 등 다양한 가족참여 사업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왔다.

이 외에도 공무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도록 직원행정 종합배상공제 가입,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장기 재직 특별휴가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양시청 뿐 아니라 광양시의 모든 기업과 기관에서 가족 친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가든마켓 상품, 이달부터 온라인 판매

20일까지 전 상품 무료 배송
선물 증정 등 사은행사 다채

순천만가든마켓의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순천시 시의 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대표 임승규)가 이달부터 온라인 쇼핑몰(scgmarket.co.kr)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정원 관련 상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온라인 판매 여력이 없는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 효과로 매출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이번 온라인몰 운영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하고 성탄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순천시 연향동 순천만가든마켓 전경.

<순천시 제공>

임승규 순천만가든마켓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겠다"며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향후 정원수 공장 등 사업을 확장해 정원 문화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도·증도·임자도 취학 전 어린이
신안군보건소 무료 눈 정밀 검진

신안군은 지난 1일 지도·증도·임자도의 취학 전 어린이 48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정밀 검진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지도읍 읍내리 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번 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진행했다. 어린이 눈 질환을 미리 발견해 제때 치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안군 보건소는 앞서 수요 조사를 벌였다. 검진에는 소아안과 전문의로팀이 참여했다. 소아안과 전문의가 시력 검사와 조절마비 굴절 검사, 약사·사시 검사 등 정밀 검진을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김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 배치

김 가공업체 4곳에 25명...이달 중 어가 2곳에 8명 추가

해남군은 겨울철 김 수확 시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김 가공업체 4곳에 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8일 입국해 마약검사와 산재보험 가입 등 절차를 거쳐 업체에 배치됐다. 이달 중 2개 어가에 8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겨울 김 수확 철 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신청을 받았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인력 배치를 고용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고용 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필리핀 등에서 어업 분야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58명으로, 15개 어가에 고용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됨으로써,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에 이 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고용주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고흥 스마트팜 토마토 첫 일본 수출길



내년 6월까지 50t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토마토가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사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된 토마토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한 토마토 일본 수출은 이날 2t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약 50t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 문성균 씨는 "전체 생산된 토마토 중 80%는 국내 도매시장과 온라인 출하를 하고 나머지 20%만 일본으로 수출

하고 있다"며 "국내보다 더 까다로운 상품을 요구하는 일본 수출을 위해 고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 임대형 스마트팜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3동 1만8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 공기열 냉난방 시설이다. 굳은 온실 환경제어, 양액 공급기가 갖춰진 스마트팜을 최장 3년간 임대해주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산물 판로 개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현대삼호중 '재해 제로' 통합관제센터 개소



지난 30일 현대삼호중공업 홍보관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신현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영암소방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비상신고 앱 등 안전관리 총괄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안전 및 에너지 관리 전담 컨트롤타워를 출범하고 무재해 작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0일 신현대 사장 등 임직원과 영암소방서·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했다. 통합관제센터는 기술 기반 안전 플랫폼을 구현하고 회사 내 사고 예방 활동 체계 구축을 위한

'2119 안전관제센터'와 에너지 사용 및 탄소중립 정책 강화를 위한 전문 관리조직인 '에너지 관제센터'로 구성됐다. 2119 안전관제센터는 영상관제 시스템,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비상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의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에너지 관제센터는 에너지 정책 대응, 사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보전 등을 수행한다. 신현대 사장은 기념사에서 "통합관제센터 가동으로 선진화된 안전 시스템과 친환경 ESG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안전과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